

지역 언론인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2015년 봄철 언론브리핑 및 간담회 결과 보고

【 2015. 3. 5.(목) / 청주기상대】

□ 개 요

- 일 시 : 2015. 2. 23.(월) 11:00 ~ 13:00
- 장 소 : 청주기상대 회의실(2층)
- 참석자 : 총 15명
 - 외부(6명) : 언론사 기상담당 기자(청주KBS 진희정, 현대HCN 충북방송 최성필, 뉴스1 남궁형진, 동양일보 이병주, 충북매일 김재민, 충청타임즈 김상규)
 - 내부(9명) : 청주기상대장, 예보관, 장기예보 담당 주무관 등

○ 주요 내용

- 2014/15년 겨울철 기상특성 분석
- 2015년 충북 봄철(3~5월) 기상전망
- 최근 황사현황 등 이슈 토론

□ 질문 및 토의사항

○ 올봄 황사 전망과 현재 발효 중인 황사특보의 강도와 특징은 어떤가?

- 현재 황사 주요 발원지역은 평년보다 건조하여 발원하기에 좋은 상태를 보이고 있어, 3월에 대륙고기압이 일시적으로 확장할 때 북서풍계열의 바람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음.
- 월별로는 3월과 4월에 평년과 비슷, 5월에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
- 이번 황사특보는 '11년 5월 이후 처음이며, 겨울철 황사특보로는 '09년 12월 이후 6년만에 내려졌고, 강도는 비교적 비슷하였음.

○ 충북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기상현상은?

- 제주 용머리해안의 해수면 상승과 같은 뚜렷한 기상현상은 없지만, 충북지역의 경우 영동 포도, 증평 한라봉 시험재배 등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음.

○ 최근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와 같이 안개로 인한 고속도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, 봄철 충북지역의 안개전망은 어떠한가?

- 충북지역은 충주댐, 대청댐이 있어 안개현상이 자주 발생하며, 청주공항 안개 결항 등 지역 언론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.
- 안개는 지역적으로 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느 시기에 짙은 안개가 나타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, 봄철은 안개발생이 점차 증가하는 시기로 특히 5월이 3~4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주 발생함.

□ 언론 보도내용

일자	언론사	보도 타이틀
2.23	뉴스1	올봄 충북 날씨 평년과 비슷...황사 발생은 평년보다 적을 듯
2.23	중부매일	충북 올봄 일시적 고온현상...황사 평년수준
2.23	뉴스1	충북 올봄 일시적 고온현상...황사 평년수준

올봄 충북 날씨 평년과 비슷...황사 발생은 평년보다 적을 듯
뉴스1 | 2015.02.23 11:00

올봄 충북지역은 3월 큰 기후변화를 보지 않아 평년과 유사한 고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. 기상청은 올봄(3~5월) 충북지역은 평년과 유사한 고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. 기상청은 올봄(3~5월) 충북지역은 평년과 유사한 고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. 기상청은 올봄(3~5월) 충북지역은 평년과 유사한 고온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.

중부매일
충북 올봄 일시적 고온현상...황사 평년수준

충북 올봄 일시적 고온현상...황사 평년수준
충북 올봄 일시적 고온현상...황사 평년수준

□ 회의사진

